

宋 啟 求

1920 年 2 月 19 日生

本籍：서울特別市 鍾路区 安国洞 42
住所：서울特別市 中区 槓忠洞 1 街 118



主要設計実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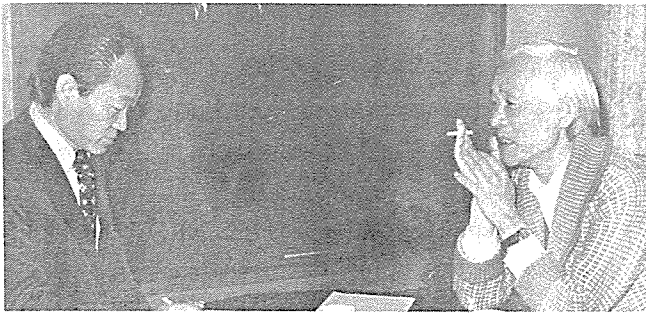
學 歷 及 經 歷

- 京城高等工業學校(現, 서울大學校工科大学)
建築工學科 卒業
- 株式會社 清水組(現 日本国 清水建設株式會社)
東京本社 入社
- 漢陽大學校 工科大学建築工學科 講師
- 서울大學校建築工學科 專任講師
- 過渡政府總務處建築課 建築士
- 社會部 住宅局 建築課長
- 金剛企業株式會社 設計部長
- 朝興土建株式會社 建築部長
- 東國大學校 建築事務室 室長
- 國展推薦作家 選任
- 五星建築研究所(現 宋啟求建築研究所)直營
- 雙竜洋灰工業株式會社 事業功勞賞
-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 東國大學校 事業功勞賞
- 大韓體育會(泰陵選手村設計)感謝狀
- 原子力研究所 感謝狀
- 美國 및 유럽 各國視察
- 綜合民族文化센터(國會議長 丁一權)感謝狀
- 民族文化센터建立推進委員會 實務委員
- 大韓 올림픽文化委員會 文化委員
- 第17回 國展建築部門 審査委員
- 大韓體育會(國際水泳場設計)感謝狀
- 大韓體育會(國際스케이트場設計)感謝狀
- 大韓建築學會 參與理事
- 第1回大韓民國建築 및 寫眞展 建築部門 審査委員
- 成均館大學校 理工大學建築工學科 講師
-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 感謝狀
- 第3回 大韓民國建築 및 寫眞展 建築部門 審査委員
- 서울特別市綜合廳舍懸賞設計 準優秀作 入選
- 韓國銀行 本店綜合行舍設計 佳作入選
- 大韓建築學會 副會長
- 第25回 國展建築部門 審査委員
- 서울特別市長 感謝狀
- 第26回 國展建築部門 審査委員
- 서울特別市文化賞(建設部門)
- 第27回 國展建築部門 審査委員
- 檀國大學校大學院建築科 講師
- 大韓建築學會 作品賞

- 東國大學校
石造本館 新築工事設計 및 監理
科學館新築工事設計
學校本部新築工事設計
圖書館 및 大學院新築工事設計
教養學部 新築工事設計
- 原子力廳
本廳舍 新築工事設計
原子力研究所本館 및 第四研究棟 新築工事設計
메가아트級 原子力建物 및 附帶施設
- 雙竜洋灰工業株式會社
雙竜洋灰工業株式會社 雙竜工場 新築工事設計
- 大韓體育會
씨키트룸 및 力道場, 레스링場, 新築工事設計 및 監理
泰陵國際水泳場 新築工事設計
泰陵國際스케이트場 新築工事設計
- 其他
世宗大王記念館新築工事設計
延世大學校 癌센터新築工事設計
仁川카토릭會館新築工事設計
서울大學校 物理地球科學館新築工事設計
西江大學校 圖書館新築工事設計
서울하얏트 호텔新築工事設計
서울大學校 綜合大型講義棟 新築工事實施設計
外換銀行 研修院實施設計
鎭海電地 昌原工場新築工事設計
成均館大學校 理工大學 新築工事設計
建設共濟組合 大田出張所 新築工事 設計
中央日報, 東洋放送 여의도 스튜디오 新築工事設計
建設共濟組合 濟州出張所新築工事設計

건축은 다분히 많은 경험을 수반하는 학문임을 알고 있기에 금번 원로 건축인을 지상에 모셔보는 난을 설정함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하다고 도움이 되는 난이 되었으면 합니다.

(編纂委員會)



겨울날씨 답지않게 축축히 내리는 보슬비를 맞으며 한적한 장충동 주택가를 찾았다.

사무실이 주택에 접해 있어 찾는데 어렵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마침 낮익은 직원이 문앞에 나와 반가운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정물 화며 깨끗이 정돈된 분위기가 평소 들은대로의 선생님 성품을 대신해 주는것 같다.

2층에 자리한 선생님 방으로 안내되면서 그동안 청각 장애로 몹시 불편하시다고 전해들었는데 건강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염려되었으나 일행을 맞으시며 포근히 웃으시는 선생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아직 완쾌는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청기 없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그동안 작품과 글속에서만 뵈던 선생님을 직접 찾아보니 여러가지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으나 우선 근황과 작품 세계, 앞으로의 계획등을 여쭙보았다.

윤봉원 : 요즈음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송민구 :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봉원 : 지금도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송민구 :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진합니다. '78년도에 TBC와 남서울 공원을 끝으로 쉬고 있습니다만 곧 시작할 생각입니다.

윤봉원 : 그럼 여가는 어떻게 소일하고 계십니까?

송민구 : 지금 건축사협회에 기고되는 "건축기획에 대하여"와 공간지에 기고되는 "현대건축"에 대한 집필을 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그림그리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봉원 : 그럼에도 취미가 있으십니까?

송민구 : 유희를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하나의 예술이니까요. (일동웃음)

윤봉원 : 선생님의 생활신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구 : 60고개를 넘어서도 아직 생활신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 사상이 아직도 미흡한 탓이라고 봅니다.

자기 완성을 위하여 많은 책을 뒤집니다만 중도에서挫折感을 느끼곤 합니다. 직업에 대한 의

문도 가져 보았으며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후회스럽기도 하며 착잡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오직 한가지 집념이 있다면 건축계에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 한가지 뿐입니다.

본지에 계속 연재되고 있는 "건축기획에 대하여"는 건축을 기획하는 Planner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자극을 주고, 또 건축을 기획할 때線型計劃法 즉 Linear Programming을 도입하는 것이며 '공간'에 연재되는 現代建築論考는 美学과 言語學에서 건축을 바라본다는것으로 정리하여 출판할 생각입니다. 한편의 저서라도 남기겠다는 집념으로 작업중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희망과 노력이 있을뿐 자신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봉원 : 건축에 관하여 선생님이 느끼신점과 보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구 : 가장 어려운 질문인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다 그러하겠읍니다만 특히 건축이라는것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같은 기성세대는 그동안 순탄한 길을 걷지 못하고 충분한 공부를 못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역시 걸작은 연륜이 있어야 나오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야 겨우 건축이 무엇인가를 알 정도이니깐요. (일동웃음)

윤봉원 : 겸손의 말씀입니다.

관공서 생활과 교편을 잡았을 때 또 현재 작가로서의 비교될만한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구 : 그 나름대로 특색이 다 있지요.

역시 실무에는 관직보다는 교단에 섰을때 근접됩니다.

자기의 흔적을 남길 수 있고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윤봉원 : 현업을 시작했을때와 현재상황에서의 변경된 점이 있다면 어떤점입니까?

송민구 : 그동안은 발전단계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하나의 작품은 그 작가의 사상 흐름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없는것 같습니다.

윤봉원 : 현재 국내일부에서 선생님의 글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건축사에게 무관한 원고를 집필하신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민구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기획에 대하여"

와 “현대건축의 론고”가 바로 그것인데 본인은 철학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전통건축 계승에 대한 것과 사상문제를 깊이 감안한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건축에 있어서 전통건축의 계승과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찰스 핑크스의 현대건축이 실패된 원인이 바로 이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은 예술이며 철학의 근본이며 따라서 가장 정확히 표현 한다면 언어라고 봅니다.

언어로서 건축을 보는 것이 70년대부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기획에 대한 근본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캠퍼스 등 많은 작품들이 외화를 들여가면서 외국에 용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격을 습득하는 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윤봉원 : 서울대학교 캠퍼스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송민구 : 미국의 도바린이 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건축기획은 건축의 조건을 명확히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며 이제 우리도 깊이 있는 건축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윤봉원 : 국내에서도 기획을 전공하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송민구 : 기획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체 형성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윤봉원 :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결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민구 :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면 됩니다. 실지 건축에 있어서 배치, 디자인은 작품활동을 하면서 자연히 터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봉원 : 선생님이 하루빨리 완쾌되셔야 건축계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민구 : 작년까지만 해도 보청기를 끼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건강에는 그렇게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원과 대학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요.

윤봉원 : 시기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건축인 모두가 건축사의 권익옹호에 합심노력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송민구 : 그것은 결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온 과거를 탈피하고 우리 자신의 자질은 우리가 향상시켜 가면서 다같이 합심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윤봉원 : 후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또 전문을 넓히기 위한 좋은 방법도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구 :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여 후진을 위한다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할말이 있다면 “건축사”지나 “공간”지에 연재되는 나의 논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준다면 기성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윤봉원 : 건축사 협회에 바라는 말씀은 없으십니까?

송민구 : 지시간일에 대해선 할말이 없고 양심과 행동으로 살아온 구윤희 회장이 잘 이끌어 주실 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부탁드리다면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건축계의 침단을 걷는 “건축사”지가 더욱 좋은 잡지가 되어서 건축을 전공하는 이에게 지표가 되어 주길 바라며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여 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봉원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고자 절대부족 등 여러가지 여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송민구 : 그동안 “건축사”지가 질적으로 많이 좋아 졌다고 봅니다. 특히 3개월 정도 늦게 발행되던지가 제달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구독자의 한사람으로서 회장님, 편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건축사”지는 건축하는 이들의 잡지이므로 전국 건축사가 적극참여하여 주셔야 겠으며 편집자 역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봉원 : “건축사”지에 발표한 논문은 건축학회지에 실은 것보다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민구 : 저는 꼭 그것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건축사 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고자를 지정하여 집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 질을 높이는 데 우선 노력을 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봉원 :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민구 :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일행에게 선생님께서는 손수 그리신 유화 한폭을 보여주시며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손녀의 초상화 라고……. 선생님의 모습은 평소 멀리서만 뵈고 들어오던대로 자상하시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선생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완쾌되시고 선생님의 작품세계 또한 그 연륜이 더해지기를 빌며 문앞까지 배웅해 주시는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했다.